

한국복식에 활용된 전통장식기법

Application of Traditional Decoration Techniques to the Korean Costume

이 해 영

대전대학교 패션디자인·비즈니스학 전공

Lee, Hae-Young

Major in Fashion Design and Business, Daejeon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traditional decoration techniques in the Korean costume.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were used to collect and investigated the traditional decoration techniques used in the related literatures and museum catalogu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broad and back stitching are fundamental stitching, which used to Nubi and Keki. Top stitching applied broadly to the Korean costume, for example, Jergori, Wonsam, Jeonbok, Beosun, Bojagi and so on. The expression techniques for top stitching were one, two or three stitches. When the top stitching was used as colorful stitches, they were more decorative. The Zatmulim was used for the decorative effect on the seam line because it was triangular shaped and became more effective by changing the color and size. Sunmulim was used on the narrow line such as the seam lines of Gergori and Chima. The bakchi decoration was imitating a bat shape, had a meaning of bringing the goodness and gave the tiny and elaborated image. It was used to the neckline of Geogori, seam line of Chima, Pungcha Bazi and so on. Sattgi was used to attaching the bottom of two stiff fabrics adopting for Beosun, Ayam and Norigae. When it used colorful strings, the more decorative effect was added. The knot for button used the fabric instead of buttons and applied to the Cheonlik, Gergori. The aesthetic values of the traditional decoration techniques in the costume were both natural beauty and practicality with creativity.

Key words : traditional decoration techniques, Korean costume, beauty

I. 서 론

21세기는 디자인과 문화 그리고 정보기술이 서로 관련되어 이끌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의 패션산업은 정보, 문화, 감성을 기본으로 개발되어 각 나라의 문화적인 특질과 감성은 곧바로 디자인에 접목되어 기획되어야 한다. 한국문화의 감성은 한국적 이미지의 표현기법을 어떻게 세계인의 취향에 맞게 접목시키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조형물에서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재발견하여 패션디자인의 조형요소를 활용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영희, 이신우, 설윤형, 진태욱, 홍미화 등 한국의 디자이너들은 한국복식의 요소를 활용해 온 대표적인 디자이너라 할 수 있다. 이들 디자이너는 패

션디자인에서 형태, 색채, 소재, 문양 등에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 중 형태는 현대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디자인 요소(여상미,1997)라 하였다.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활용되는 형태는 한국복식 품목인 저고리, 바지, 치마, 두루마기, 당의 등의 형태적인 특징을 응용하거나 변형하고 나아가 실루엣 연출 등(김혜경외, 2001)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반해, 색채는 조형요소중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함에 있어 가장 적게 나타났다(김인경,1995)고 하였다. 소재는 면, 견, 마 등의 천연섬유를 사용하였고 문양은 전통문양에서 모티브를 빌려와 현대패션에 적용하여 한국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처럼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함에 있어 형태, 색채, 소재, 문양과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것은 장식이라 할 수 있다. 장식은 시대나 민족의 조형양식의 특성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전형(조규화,1989)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국적 장식 기법을 우리 문화의 특성과 함께 디자인 접목을 통해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할 때 비로소 시공을 초

Corresponding author : Lee, Hae-Young
Tel : 042-280-2461
E-mail : hyoung@dju.ac.kr

월하여 세계의 다양한 패션 장식 기법 속에 우리의 장식 기법이 현대 패션디자인에 활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전통적인 장식기법이란 한국복식에 주로 장식적으로 사용되거나 표현되어진 기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인 장식기법에 관해서 알아보고 한국 복식에 어떻게 장식기법이 활용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용된 연구자료는 문헌자료와 관련된 연구 그리고 박물관에서 발행된 박물관 도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II. 한국전통장식기법

한국전통복식에 사용되어진 전통장식기법으로는 흠질, 박음질, 감침질, 공그르기, 새발뜨기, 사뜨기, 박쥐장식, 선물림, 잣물림, 매듭단추 그리고 흠질, 박음질로 된 곱술, 누비, 상침 등이 있다.

1. 흠질과 박음질

흠질은 가장 기본적인 바느질로서 땀이 고르고 감이 밀리지 않아야 한다. 땀의 크기에 따라 고운 흠질, 보통 흠질이 있다. 고운 흠질은 0.2cm 정도로 하고 보통 흠질은 겉 땀을 0.3cm, 뒤 땀을 0.5cm 정도로 한다.

박음질은 솔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바늘땀을 뒤로 되돌아 뜨는 바느질이다. 되돌아 뜨는 땀의 간격에 따라 온 박음질과 반박음질이 있다. 온 박음질은 한 땀의 크기 만큼을 완전히 뒤로 되돌아 뜨고 반박음질은 한 땀 크기의 반만큼만 뒤로 되돌아 뜨는 것으로서 겉에서 볼 때 흠질과 같이 나타난다.

흠질과 박음질을 기본으로 곱술, 누비, 상침 등을 만들 수 있다.

1). 누비

누비는 흠질과 박음질로 하며 주로 흠질누비에는 명주가 사용되고 박음질누비에는 무명을 사용한다. 누비의 형태는 평행한 수직선으로 된 줄누비와 사선을 이용한 대각선 형태의 누비가 있다. 누비의 종류는 누빈 줄의 간격에 따라 잔누비 또는 세누비 중누비, 드문누비로 나뉘지며 누빈형태에 따라 입체감이 나는 오목누비와 평면적인 납작누비로 구분된다. 또한 솜의 사용여부로 솜누비와 겹누비로 나눈다(김해자, 2002).

2). 상침

상침은 박음질을 활용하는데 솔기의 가장자리를 겉에서 돌아가며 한다. 두 땀 상침은 온 박음질 2번에 반박음질 1번씩을 하며 세 땀 상침은 온 박음질 3번에 반박음질 1번씩 한다(그림1). 각 땀마다 색을 다르게 하여 그라데이션 시킬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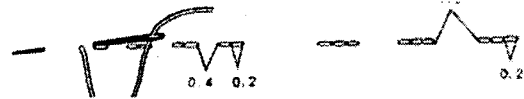


그림 1. 두땀상침과 세땀상침

3) 곱술

곱술은 고운 솔기로 곱술로 이루어진 것을 깨끼라 한다. 손바느질에서 흠질을 활용하는데 먼저 두 겹을 안쪽으로 마주 보도록 붙여서 0.5cm 정도 밀을 첫 번째 흠질을 한다. 흠질한 선에서 접어서 다리미로 시접을 만들어 준다. 접은 선 위에서 0.1cm 밀을 곱게 2번째 흠질한다. 2번째 흠질한 밀을 0.1cm정도 남기고 잘라낸다. 시접은 다시 한번 접어서 다리미로 눌러준 후 3번째 곱게 흠질한다. 바느질 선이 투명하게 보이므로 같은 폭이 되도록 해야 하며 완성된 선이 가늘수록 예쁘다.

2. 감침질, 새발뜨기, 공그르기

감침질은 조각 천을 잇거나 형질을 덧댈 때 또는 단을 튼튼하게 할 때 한 땀씩 뜨는 방법이다. 실이 늘어지거나 당겨지지 않도록 일정하게 잡아당기고 땀을 고르게 뜬다. 감침질의 종류에는 보통 감침, 어긋 감침, 속 감침, 말아 감침이 있다. 말아 감침은 얇은 감으로 단을 좁게 접을 때에 하며, 어긋 감침질은 조각천의 안과 안을 맞댈 때에 하며 겉에서 바느질한다.

새발뜨기는 두꺼운 옷감의 단을 튼튼하고 편안하게 처리하거나 예쁘게 장식할 때 사용된다(그림2). 두꺼운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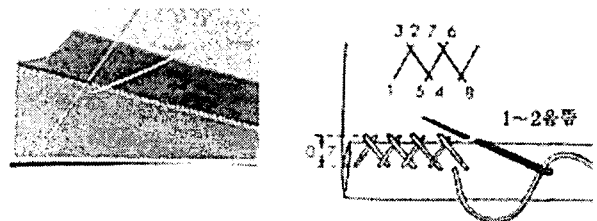


그림 2. 어긋 감침질과 새발뜨기

의 치마 단이나 두루마기 단에 이용되며 안감이 비어져 나오지 않도록 도련부부의 안감과 시접을 고정시킬 때 활용한다.

공그르기는 치맛단을 하거나 끈을 접을 때 바늘을 눌러 들고 실이 겹으로 나오지 않게 속으로 떠서 한다.

3. 사뜨기

사뜨기는 타래버선, 골무, 수 노리개, 아얌 등과 같이 양끝이 마무리된 뽀뽀한 두 장을 붙일 때 사용된다. 그림 3과 같이 번호 순서대로 바늘을 왼쪽 위로 빼내어 오른쪽 아래로 어긋나게 내려꽂고 다시 왼쪽 아래로 빼내어 오른쪽위로 어긋나게 올려 꽂은 다음 왼쪽 위의 바느질된 바로 밑으로 빼내어 되풀이한다. 용마루가 지면서 예쁘게 되는데 장식의 효과를 크게 하려면 색실로 한다.



그림 3. 사뜨기

4. 잣물림과 선물림

잣물림과 선물림은 절개선에 삼각형의 잣모양과 가는 선을 만들어 물리는 것이다.

잣물림은 2-3cm의 정사각형을 준비하여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 시침질하여 고정하여 물린다(그림4).

선물림은 형짚을 접어 절개선에 물리면 가는 선이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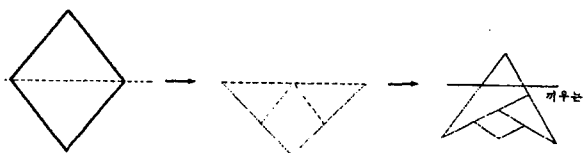


그림4. 잣물림

5. 박쥐장식

박쥐장식을 쌍밀이 단추라고도 한다. 박쥐장식은 이음선이 만나는 곳이나 트임의 끝부분에 사용되어 실용성과 장식성을 겸한다. 박쥐장식은 정사각형(3-4cm)의 형짚을 마주보는 모서리에 중앙을 향해 안으로 한쪽씩 단단히 밀어 넣은 다음, 말은 부분이 바깥을 향하도록 중심을 잡는다. 접은 끝에서 0.3-0.5cm 떨어진 곳을 실로 단단히 묶고, 양쪽을 벌려 손으로 만져 모양을 잡은 다음 0.2cm 정도 남기고 잘라낸다. 잘린 부분은 합성섬유는 불로 그을리고 견 등은 풀을 바른다. 완성되면 박쥐의 날개부분을 벌려 원하는 곳에 속감침질로 고정한다(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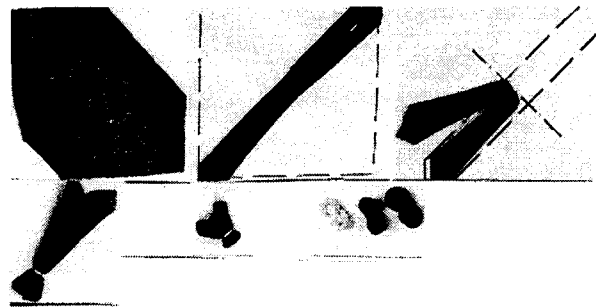


그림 5. 박쥐장식

6. 매듭단추

매듭단추는 형짚을 사용하여 매듭을 이용하여 단추 역할을 하거나 소매부분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림6과 같이 너비 0.5cm 정도에 길이 40-50cm의 끈을 박아 뒤집은 후 그림과 같이 매듭단추를 맺는다(한복실기,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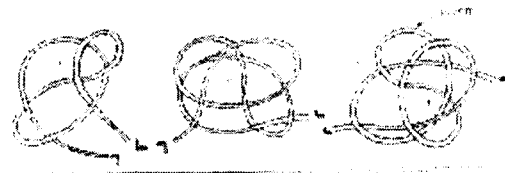


그림 6. 매듭단추

III. 한국복식에 활용된 전통장식기법

1. 한국복식에 활용된 흠질 및 박음질

흠질과 박음질은 옷을 봉제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

본적인 침선기법이나 복식으로 활용된 장식기법도 많이 보인다. 그림7과 그림8은 흙질과 박음질을 이용한 누비 배자와 저고리이다. 이 배자는 흰색명주에 솜을 두어 곱게 누빈 것으로 누비기술과 정성이 돋보이는데 이와 같은 배자는 해원의 풍속화에서 각 계층에 착용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담인복식미술관개관도록, 1999). 그림8은 박음질을 이용하여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하여 만들어진 잔누비 어린이 저고리이다. 이처럼 흙질과 박음질은 누비로 많이 활용되어 정성스러움과 고음뿐만 아니라 은근과 끈기의 한국의지도 표출되고 은은한 아름다움도 엿보인다.



그림 7. 흙질을 이용한 누비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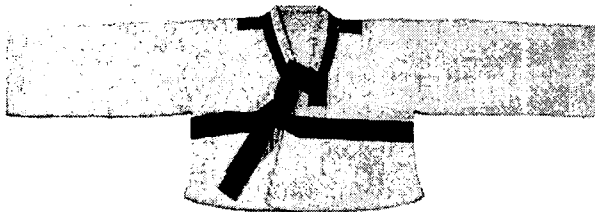


그림 8. 박음질을 이용한 잔누비저고리

다음을 더했다.

그림10은 궁중 여인들의 여름용 예복인 홀 당의의 자락부분이다. 이 홀 당의는 대원군

큰 자부인 노 공비의 유품이다. 깃은 당코 깃이고 흰색동정과 등 바대 그리고 소매 끝에는 거들지가 있다. 홀 당의는 한 여름에 입는 것으로 생수같은 얇게 비치는 감을 홀로 바느질하였다. 또한 당의의 길의 앞 뒤 도련 부분을 얇게 말아 감침질 기법을 함으로서 곡선부분이 자연스럽게 밀려들어간다.

이와 같이 어긋 감침질에 이용되는 실 색의 조화감각은 고난도의 색 감각이 요구되며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말아 감침 기법은 자연스러운 곡선이 더 자연스럽게 표현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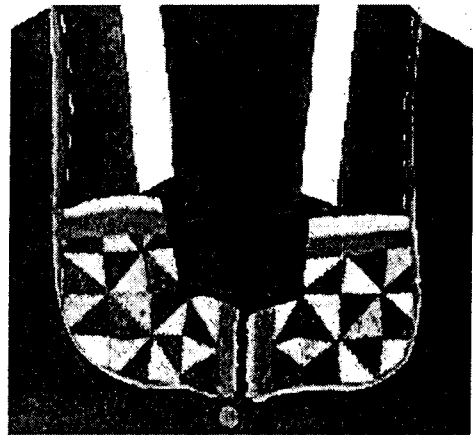


그림 9. 어긋 감침질과 상침이 돋보이는 전복의 깃부분



그림 10. 말아 감침질을 한 당의의 도련선

2. 한국복식에 활용된 감침질

복식에 활용된 장식 감침질에는 어긋 감침질과 말아 감침질을 볼 수 있다. 그림9는 전복의 윗 부분으로 깃의 아랫부분에 삼각형모양과 직사각형의 기하학적인 형꼴에 어긋 감침질로 곱게 장식하였다. 이 때 어긋 감침질한 실은 형꼴의 색과는 다른 붉은 색을 이용하여 전복의 아름다움을 더했다.

3. 한국복식에 활용된 새발뜨기

새발뜨기가 복식에 이용되는 것은 많이 볼 수 없었으며, 주로 안감이 나오지 않도록 안감과 시접을 고정시킬 때 사용된다. 그림11은 호건으로 겹감과 안감을 고정시킬 때 동시에 호건의 입 부분의 호랑이 이빨을 새발뜨기로

수를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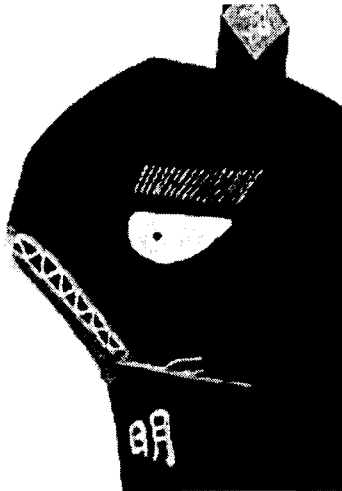


그림 11. 호건 입부분의 새발뜨기

4. 한국복식에 활용된 상침

상침은 전복, 저고리, 원삼, 버선, 토시 등 복식뿐만 아니라 방석, 보료, 상보 등 생활용품에도 많이 사용되는 장식기법 중의 하나이다. 그림12는 타래버선으로 이 버선은 마치 누빈 것처럼 보이는 직물로 만들었는데(담인복 식미술관, 1999) 그 위에 붉은 색실과 파란 색실을 이용하여 한 땀 상침을 하여 디자인한 것이다. 직선의 천과 함께 한 땀 상침한 구성이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보인다. 그림9의 전복의 깃 부분에서는 세 땀 상침을 볼 수 있으며 그림13의 토시에서도 두 땀 상침과 세 땀 상침이 보인다. 이 토시는 어린이용 토시로 검은빛 바탕에 색스럽게 장식하였으며 대조되는 옅은 색으로 상침 하였다.

이와 같이 상침의 기법에는 한 땀 한 땀씩 표현되는 한땀상침, 두 땀씩 표현되는 두땀상침, 세 땀씩 표현되는 세땀상침 등이 있다. 상침을 할 때 대비되는 색으로 하거나 각 땀마다 색을 달리하여 그라데이션을 하면 다른 장식적인 효과를 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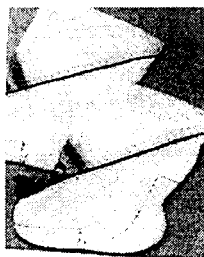


그림 12. 상침으로 장식한 타래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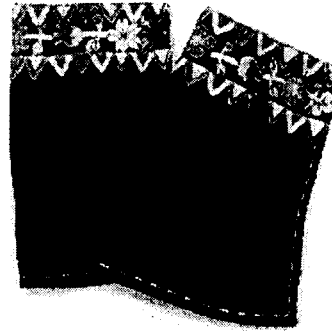


그림 13. 상침과 자수가 있는 예쁜 토시

5. 한국복식에 활용된 잣물림과 선물림

선물림과 잣물림은 봉제하는 과정중 절개선에 삼각형 모양의 잣과 가는 선이 표현되도록 장식하는 기법이다.

그림14은 몽두리의 깃 부분이다. 무복의 하나인 몽두리는 죽은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할 때 당의 위에 착용하는 옷이다(금기숙,1994) 이 몽두리는 깃 둘레에 돌아가면서 알록달록한 색으로 부착한 잣누비가 보인다. 근래에 와서는 저고리의 깃 선(그림15)과 섯선 뿐만 아니라 치마폭의 이음부분, 베갯모, 상보, 주머니에도 잣물림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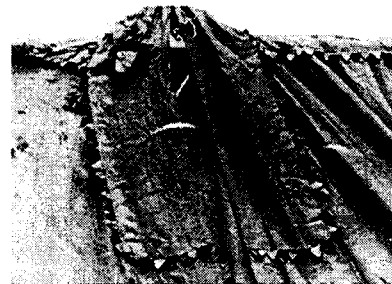


그림 14. 깃과 어깨부분에 잣물림이 있는 몽두리



그림 15. 선물림과 잣물림이 있는 저고리

선물림은 가는 선 모양이 표현되는 것으로 저고리의 이음선, 적초의와 흑단령 등에도 보인다. 적초의는 조복으로도 불리는 의례복으로 굵고 검은 선은 의복의 색과 강한 색채대비를 보이며 특히 하얀 색의 선물림은 섬세하고 정교한 특징을 더해준다. 흑단령은 제복으로 소매 끝 부분, 거드랑이와 세로 선단 그리고 가로선단 부분에 흑색과 대조되도록 절개선에 선물림이 되었다(그림16).

이와 같이 잣물림은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저고리, 치마 등의 술기 선에 두개 혹은 세 개 심지어는 몽두리처럼 많은 수의 잣을 물려 장식효과를 낸다. 또한 주머니, 베갯모, 상보 등의 생활소품에도 활용되는데 이때 잣의 모양은 끝이 뾰족해야 하며 크기나 색을 달리하면 변화된 모양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선물림은 가는 선 모양으로 저고리의 쉼선이나 등술기선, 깃 선등에 주로 많이 보이며 적초의, 흑단령의 선단에도 장식된다. 또한 치마폭을 이을 때도 선물림을 하면 다른 이미지가 표현된다. 또한 생활소품에도 이용하면 고운 테를 더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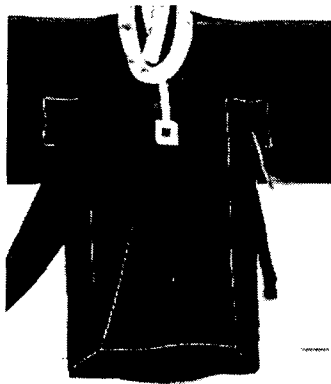


그림 16. 흑단령의 선물림

6. 한국복식에 활용된 박쥐장식

박쥐장식은 박쥐문양을 형체화하여 만든 장식기법이다. 박쥐장식은 박쥐모양을 가지는데 박쥐문양은 오복, 다남, 장수 등을 상징하는 길상적인 의미를 나타낼 뿐 만 아니라 그 형태 또한 앙증스러움을 더하여 고급스러움과 정성을 깃들인 멋을 더해준다. 박쥐장식은 양쪽으로 밀어서 만든 다하여 쌍밀이라고도 일컫는다. 박쥐장식은 저고리의 고대점, 치마 이음선, 풍차바지, 조바위, 아얌드림 등에 한다

그림17은 풍차바지로 이 바지의 색은 소색이나 조끼처럼 이음선에 장식한 박쥐장식은 붉은 형견으로 앙증맞게 달려있다. 이러한 박쥐장식은 이음 선을 튼튼하게 해주는

실용적인 측면 뿐 아니라 의복의 색과 대비되는 색으로 하거나 같은 색으로 하여 의복에 있어서 장식적인 역할을 하므로써 그 옷의 정성스러움의 수공예적 감성을 높여준다. 박쥐장식이 보여지는 곳은 저고리의 양 고대점, 치마나 아얌드림 등 옷에 있어서의 이음선, 전복의 트임 부분에 사용되며 이외에 조각보의 모서리 등에도 박쥐장식이 많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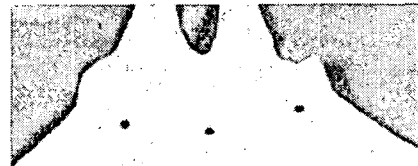


그림 17. 박쥐장식이 있는 풍차바지

7. 한국복식에 활용된 매듭단추와 사뜨기

매듭단추는 단추나 고름 대신(그림15)으로 활용되는 것이 많으며 의복과 같은 색으로 매듭단추를 하기도 하고 대조되는 색으로도 한다. 또한 소매 한 쪽을 떼었다 부쳤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칠력이나 몽두리 등의 소매에 매듭단추를 활용한 것들이 유물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많다. 따라서 매듭단추를 이용하여 소매가 있는 의복에 디자인을 활용하면 2벌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사뜨기는 의복보다는 아얌, 타래버선, 수노리개, 골무 등에 주로 이용된다. 사뜨기를 하는 부분에는 용마루가 생기는데 이때 사용하는 실의 색은 바탕 천과 같은 색으로 하면 더 곱게 보이는 반면 대비되는 색을 사용하면 장식적인 효과가 커진다.

IV. 한국복식에 표현된 전통장식기법의 미

한국복식에 활용된 전통장식기법은 흙질, 박음질, 감침질, 상침, 사뜨기, 선물림, 잣물림, 박쥐장식, 매듭단추, 곱술, 누비 등이 활용되면서 복식에서 기능성과 실용성은 물론 장식적인 미의 측면이 한층 더하여 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적 측면의 가치를 자연의 미와 예술의 미로 접근하고자 한다. 자연의 미는 자연이 가지는 미이며 그 미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수용적인 미이다. 예술의 미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창작적인 미이다. 또한 자연의 미를 인공(人工)으로 만들어내려고 하기에 자연미와 예술

미는 근본적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김원룡, 1987).

1. 자연의 미

자연의 미는 한국복식에 사용된 천연소재에서는 물론이고 전통장식기법의 하나인 흙질과 박음질을 이용하여 나온 누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주로 흙질을 이용한 흙질 잔누비는 명주를 이용한 반면 박음질누비는 무명을 사용한다. 이는 소재에 따라 장식기법도 선택되어 소재와 장식기법이 자연적으로 조화가 될 뿐만 아니라 기능성이고 실용성인 측면도 엿보인다. 또한 누비자체에서 새로 생성되는 줄무늬가 무늬의 생성감도 갖게 한다.

당의의 도련선이 자연스런 곡선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말아 감침질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곡선 표현을 위해 그 기법이 이용되었을 것이다. 사뜨기, 박쥐장식 그리고 매듭단추 등에서 바탕옷감과 같은 색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장식기법들이 복식과 자연스러운 친화력을 갖게 하면서 실용성도 지니고 있다.

2. 예술의 미

예술의 미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창작적인 미로 장식적인 측면이 강하게 표현된다. 어슴감침질로 형겼을 이으면서 형겼과 다른 색의 실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는 실의 색에 따라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느질 솜씨 또한 그대로 배어나온다. 이는 전통장식기법 자체가 곧 예술이며 옛 조상들의 정성이 깃든 숨겨진 것이다.

선물림, 잣물림, 박쥐장식 그리고 사뜨기 등에서도 대조되는 색으로 하여 강조되기도 한다. 모양이 앙증맞은 잣물림과 박쥐장식은 기교의 섬세함과 정성 그리고 제작자의 공들인 흔적이 여실히 표현되는 기법이기도 하다. 또한 상침은 한국복식뿐 만 아니라 현대복식에서도 많이 애용되는 장식기법으로 색과 질감으로 대조 되게 하여 디자인을 변화되게 하거나 미적인 측면을 높여준다.

이처럼 한국전통장식기법의 미적인 가치는 자연의 미와 예술의 미가 함께 내재해 있다.

인 장식기법에 관해서 알아보고 한국 복식에 어떻게 장식기법이 활용되었는지 그리고 미적 측면에 관해서 고찰하였다.

흙질과 박음질은 가장 기본적인 기법중의 하나로 이를 이용하여 누비와 깨끼 등에 이용되었다. 상침은 저고리, 원삼, 전복, 토시, 버선, 보자기, 방장 등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상침의 표현기법에는 한땀상침, 두땀상침, 세땀상침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상침을 할 때 대비되는 색으로 하거나 각 땀마다 색을 달리하여 그라데이션을 하면 장식적인 효과를 크게 한다. 잣물림은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저고리, 치마 등의 솔기 선에 두개 혹은 세 개씩 잣을 물려 장식효과를 내며 주머니, 베갯모, 상보 등의 생활소품에도 활용된다. 이때 잣의 모양은 끝이 뾰족해야 하며 크거나 색을 달리하면 장식 효과가 커지고 정성스러움이 표현된다. 선물림은 가는 선 모양으로 적초의 등의 선단, 저고리의 섶선이나 등솔기선 그리고 치마폭을 이을 때 선물림을 하면 섬세하고 고운 테를 더하면서 선의 이미지를 크게 하는 효과를 준다. 박쥐장식은 박쥐문양을 형체화하여 만든 장식기법으로 길상적인 의미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형태가 앙증스러움을 더하여 고급스러움과 정성을 깃들인 멋을 더해준다. 저고리의 고대점, 치마 이음선, 풍차바지, 조바위, 아얌드림 등에 주로 활용한다. 사뜨기는 양끝이 어는 정도 뾰뾰한 두 장을 붙일 때 사용하는데 타래버선, 아얌, 수노리개, 꿀무 등에 활용된다. 색실을 사용하면 장식의 효과를 더해준다. 매듭단추는 단추 대신에 형겼 천으로 매듭을 이용하여 철릭, 저고리 등의 복식에 활용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전통장식기법의 미적 가치는 자연의 미와 예술의 미가 내재되어있으며 장식의 효과와 더불어 실용적인 면, 정성스러움과 섬세하고 정교한 고음도 복식에서 표현된다.

이와 같이 한국적 장식기법을 우리문화의 특성과 함께 디자인 접목을 통해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할 때 비로소 시공을 초월하여 세계의 다양한 패션장식기법 속에 우리의 장식기법이 현대 패션디자인에 활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잊혀져 가는 전통장식 기법을 활용하여 표현할 때 그 가치를 바로 알고 재인식하여 우리의 마음에 자긍심과 함께 우리의 것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갖게 할 것이다.

주제어 : 전통장식기법, 한국복식, 미.

V. 결론 및 제언

이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와 관련된 연구 그리고 박물관에서 발행된 박물관 도록을 중심으로 전통적

참 고 문 헌

겨울한복(1992). 대원사, p.65

- 근세복식과 우리문화(2003), 경운박물관 개관기념, 경운회
 금기숙(1994), 조선복식미술, 열화당.
 김미자(2001), Calender, 삼성생명
 김인경(1995).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
 국의류학회지 19(3).
 김원룡(1987), 한국미의 탐구, 설화당, p.7.
 김해자(2002), 한국의 누비옷, 한국문화재보호재단, pp.9-11.
 김현희외(2003). 보자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p55.
 김혜경외(2001). 이영희의 의상작품에 응용된 한복의 요
 소, 한국의류산업학회지 3(2)
 담인복식미술관개관도록 (1999).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민속도록(1983), 온양민속박물관
 복식(1995).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특별전 도록 23, 이화
 여자대학교출판부.
 석주선기념박물관(2000), 한국전통어린이복식, 단국대학교
 출판부.
 유희경(1986).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경자의(2003), 우리옷과 장신구, 열화당.
 이미석외(2002). 조선시대 규방문화와 침선소품에 관한
 연구, 복식 52(8).
 조규화(1989) 복식미학, 수학사, 서울, p.153.
 조선시대의 관모(1988), 온양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
 조선시대 복식특별전 도록(1986).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이방자(1985), 조선왕조궁중의상, 동아출판사.
 조풍연(1986).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서문당.
 한복실기(200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서울 경인채정보
 산업협동조, p.17
 허동화(1988). 옛보자기. 한국자수박물관 출판부.
 (2003. 12. 10 접수; 2004. 02. 02 채택)